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함께

천만 상상

일천 토대교회
일만 평생회원

우리들의 천만상상으로 만들어 가는
새로운 평화의 100년을 기대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24년 9월 24일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로 창립된 교회와 연합기관의 협의체입니다. 성서를 기반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 운동, 선교를 위한 교회들 간의 유대와 연합 운동, 사회에 대한 책임 의식과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공동중언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교회가 간직한 다양한 신앙의 경험을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세계 교회와 상호 협력, 공동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계교회협의회, 아시아기독교협의회, 세계 각국의 교회협의회, 기독교 단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회원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한국구세군
대한성공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한국정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한국루터회

연합기관

기독교방송 | CBS
대한기독교서회 | CLSK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 KSCF
한국YMCA전국연맹 | YMCA
한국YWCA연합회 | YWCA

지역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걸어온 길

1918. 2. 26	한국교회 연합기관인 조선예수교장감연합협의회 창립
1924. 9. 24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 창립총회(재한개신교선교부통합공의회와 조선예수교장감연합협의회 통합)
1926	일제의 강압적인 "종교단체법" 제정 반대운동
1932. 9.	사회신조 12개 조항 채택(1. 인권·평등, 2. 차별금지, 3. 남녀평등, 4. 아동권·아동노동 금지, 5. 여성지위개선, 6. 공창폐지, 7. 노동자교육과 노동시간 단축, 8. 협동조합장려, 9. 노사간 협의기구 설치, 10. 소득세 및 상속세의 고율적 누진세, 11. 최저임금법·소작법·사회보험법 제정, 12. 일요일 휴무일의 제정과 복지에 관한 입법 및 시설)
1937-1945	일제에 의하여 강제 해산
1946. 10. 19	"한국기독교연합회" 제1회 총회 개최(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 계승)
1951	한국전쟁 구호사업 시작, 세계교회 동참
1959. 12. 10	기독교 신앙고백을 중심으로 한 "1959년 에큐메니칼 선언" 발표
1961	연세대학교와 연합신학대학원 설립을 합의, 에큐메니칼위원회와 신학교협의회 조직
1970. 2. 2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로 명칭 및 조직 변경
1974. 5. 4	인권위원회 조직(본격적인 한국기독교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시작)
1974. 7. 18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목요기도회" 시작
1976. 1. 29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창립총회, "기독교청년 에큐메니칼 선언" 발표
1982. 1. 1	NCK 총대에 여성위원 포함 결의
1982. 4. 13	천주교와 연합으로 한국 최초의 환경운동 단체인 한국공해문제연구소 설립
1984. 10. 29	1차 도산소 회의 개최 (한반도의 분단 상황과 통일 문제를 국제적으로 부각하고 남북 그리스도인의 교류 통로 확보)
1985. 10	공정한 언론환경 조성을 위한 KBS-TV 시청료 거부운동 시작
1986. 3. 17	재일한국인 인권문제 분과위원회 구성, 재일동포 법적 지위 향상 및 지문날인제도 철폐 노력
1986. 9. 2-5	1차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독교자협의회"(일명 글리온 회의) 개최, 남북 그리스도교 대표자 최초 상봉 및 공동 성찬
1986. 9. 26	개신교 장애인자협의회 조직, 이후 장애인 이동권, 교회 내 장애인 참여 및 예배권 확보를 위한 노력
1988. 2. 29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일명 88선언) 발표
1993. 8. 15	남북인간띠잇기행사 개최 (독립문에서 임진각까지)
1997. 11. 24	노근리 미군 양민학살 사건 진상조사단 조직, 이후 노근리 사건의 사회적 인식 확산 노력
2001.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 운동' 조직
2013. 10. 30	WCC 제10차 총회 개최(부산)
2014. 5. 22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창립
2018. 1. 25	2024년 창립 100주년을 향한 천만상상 운동 결의

테마로 보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기억

01

에큐메니칼 운동은 '기억'입니다.

복음은 성경이 증언하고 사도로부터 계승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기억입니다. 수많은 세월, 셀 수 없는 사람들의 삶의 이유가 되었던 그 '기억'이 한국 땅을 찾아왔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숨길을 열었습니다. 교육, 의료, 신문명은 젊은 이와 여성, 그리고 꿈꾸는 이들의 등불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의 선조들은 하나의 복음, 하나의 교회, 하나의 조선을 꿈꾸었습니다.

여성

04

에큐메니칼 운동은 '여성'의 수난당하는 마음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교회는 양장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했고, 전후에는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긴급지원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거리에는 절망이 나뒹굴었지만 그 틈에는 '어머니'같은 복음의 손길이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굳세게 사람들을 지탱시키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라는 부르심을 거룩한 소명으로 들었습니다.

청년

02

에큐메니칼 운동은 푸르른 '청년'의 이상입니다.

한국교회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었기에 또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성장도 하기 전에, 일본 제국주의는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자치를 불허했습니다. 급기야 1937년에는 일본기독교에 강제로 통합시켰습니다. 외형은 없어졌어도 농촌에서, 도시에서, 또한 이국땅에서 한국교회는 고통스럽지만 '이상'을 꿈꾸며 '청년'의 시기를 살아내었습니다.

정의

05

에큐메니칼 운동은 '정의'입니다.

교회는 급격히 성장하였습니다. 경제개발의 와중에 위로와 쉼 그리고 안정된 내일이 필요했던 사람들은 교회를 찾았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얻었지만, 사회는 정치적 소용돌이에 휩싸여 민주주의와 인권에 커다란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때 소수의 외침이 다시 세상을 깨웠습니다. 작게나마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행진이 교회 안에서도 시작되었습니다.

일치

03

에큐메니칼 운동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입니다.

극한의 고난이 끝나자 한국교회는 냉전의 울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분열되었고 민족공동체는 남과 북으로 나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형체도 없는 이념대립이 자리했으며 참혹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화해한다는 복음, 성령 안에서 경험되는 '영적 일치'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권

06

에큐메니칼 운동은 '인권'입니다.

인권이란 말은 교회가 가장 먼저 사용했습니다. 암울한 시기일수록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예언자로서 그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유신반대운동에 앞장섰고 군사독재정권에 저항하였습니다. 인권위원회, 목요기도회,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등은 이 시기에 태어난 자랑스러운 이름들입니다. 시대정신을 품은 교회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평화

07

에큐메니칼 운동은 '평화'입니다.

성장의 정점을 경험한 교회는 끝없는 분열과 신앙적 독선, 물질에 대한 탐욕과 명예심으로 신뢰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은 냉전에 휩쓸려 평화보다는 대결의 길로 갔지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더불어 함께 사는 '평화'를 외쳤습니다. 남북이 함께 만드는 평화는 물론 함께 살아가는 일상의 평화를 위해 일했습니다.

다름

08

에큐메니칼 운동은 '다름'의 존중입니다.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는 급격히 개인화되었습니다. IMF 국제구제금융과 함께 개인의 삶이 흔들리고 경제지상주의도 흔들렸습니다. 사람의 존엄은 신자유주의에 의해 붕괴되었고 각자도생이 삶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대변하면서 내가 이웃을 지켜줄 수 없다면 나도 살아갈 수 없음을 알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이 모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냅니다.

생명

09

에큐메니칼 운동은 '생명'입니다.

지난 2013년 부산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는 '정의, 평화의 순례'를 결의했습니다. 평화는 정의의 결과이며 생명은 정의와 평화의 근원입니다. 한국근현대사와 한국교회는 같은 모양으로 잘함과 못함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풍성한 '생명'을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새로운 100년 여러분과 함께 꿈꿉니다.
천만상상으로 시작합니다.

일천 토대교회 (1구좌 5만원부터)

신한은행 100-028-002236
한국기독교연합사업유지재단

일만 평생회원 (1구좌 5천원부터)

신한은행 100-019-994108
한국기독교연합사업유지재단

* 후원금은 교회협이 추진하는 사업을 위해 전액 사용됩니다. 회원에게는 발간한 책자와 소식지를 나누어 드립니다.
*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함께



www.kncc.or.kr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03129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9 한국기독교회관 706호